

2015년 11월 30일 새벽말씀(편집본)

네, 오늘도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했어요? 새벽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와 닿고, 그리고 기도한 것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맛’이 들었습니까? 김치 맛이 들듯이. 음식도 맛이 들어야 맛있습니니다.

그리고 음식은 먹고서 몸에 들어가고 위에 들어가 발효가 되어야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쓰여지고, 새벽에 하늘과 의논하고, 말씀을 듣고, 맛이 들어야 됩니다.

맛이 들면 음식이 어떻습니까? 맛이 있습니다. 맛이 안 들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맛이 들어야 맛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맛이 들어야 됩니다.

새벽이 맛있습니까? 새벽, 맛있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까지 기도를 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한두 번만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성경에 한 군데만 나왔어도 귀하게 보아야 됩니다. 또 읽고 또 읽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을 50번씩, 100번씩 읽습니다.

본인이 해 봐야 성서가 와 닿습니다. 본인이 해 봐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가슴에 찌릿 찌릿 찌릿, 그리고 머리에 찌릿 찌릿 찌릿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인이 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울고 짜며 “하나님, 나는 왜 안 줍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하며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라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악착같이 생활해 봤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얻는 것은 없어도 막 뛰고 달리며, 막 동당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말씀 들을 때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고, 뛰어 돌아다니니까 몸이라도 풀렸다.” 합니다. 벌써 뭐가 달라졌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루 이틀 삼일 사일 가다보면, 오랫동안 가다보면 그렇게 한 일에 대한 대가가 꼭 옵니다. 그것은 꼭 옵니다.

금방 뭐 조금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조금 밖에 안 달라집니다.

한 달 두 달 때를 밀지 았다가 목욕탕에 가서 밀어 보세요. 급하다고 확확 밀어보세요. 껍질만 벗겨져서 따끔따끔하기만 합니다. 한 30분, 40분 불린 다음에, 머리를 감은 다음에 때를 밀어야 됩니다. 한두 번 싹싹 밀어서 되겠습니까? 있는 곳마다 다 씻고 닦고 밀어대고, 안 닿는 등허리는 옆의 사람에게 밀어 달라고 하든지, 목욕탕 기둥에 수건을 묶어놓고

밀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해야 때가 밀어지는 것입니다.

“어이, 시원하다. 어이, 그 놈의 때. 이렇게 때가 있듯이 인생에게도 때가 있다고 우리 선생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이렇게 밀었으니 한 달이나 두 달은 갈 것인가?”

뭘,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갑니까?

3일이면 땀나고 운동하면 3일이면 또 때가 나오고, 로션을 바르고 화장하고 그러면 또 때가 나는데. 노폐물이 계속 빠져 나오는데.

“에이, 몸뚱아리, 이것 관리하는데 힘드네.” 합니까?

온 세상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요?

늘 씻고 닦고, 이를 씻고 닦고, 깨끗이 구석구석까지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죄가 있는가 보고 그래야 됩니다.

이 놈의 죄 때문에 흑암들이 오고, 마귀들이 오고, 사탄들이 오고, 행악자가 더 지랄 난리통을 친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면 의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깨끗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니까.

그리고 신부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들들은 더러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들은 더러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신부들은 접촉하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도 깨끗하게 닦고, 머리도 냄새나면 안 되고, 옷도 늘 빨아 입고 깨끗이 하고, 멋있고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하늘을 만나기에.

선생은 옛날에 교회에 다닐 때, 늘 깔끔하게 한 것이 확실히 기억납니다. 씻고 닦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게 하고 왔다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깔끔하게 하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나는 그때에 애인 만나러 간다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때가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그때도 “애인 만나러 간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리고 쳐다본다.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너, 왜 이렇게 애리에 때가 있냐? 그리고 너 몸 안에서 냄새 난다. 때 냄새가 난다.” 이렇게 늘 하는 것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관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씻고 닦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는 다 준비되었는데 옷이 안 빨아졌습니다. 와이셔츠가 안 빨아져 있었습니다. 와이셔츠가 많지 않았는데.

‘야, 이거.. 정말로 이거..’

다 됐는데, 씻고 닦고 다 했는데, 목욕하고 다했는데 딱 보니까 셔츠가 안 빨아진 것
입니다. ‘아 이거 빨아 뉘어야 하는데...’

안 빨아져 있었습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빨았습시다.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막 빨아
갖고 들고 갔습시다. 막 흔들면서 말리면서 갔습시다.

석막교회에 가기 전까지 말려야 했습시다. 근데 꾸득꾸득 거진 말랐더라는 것입시다.
얼마나 흔들어 대고 얼마나 돌렸는지 바람결에 말랐던 것입시다.

그때는 머리가 조금 덜 돌아갔습시다. 마른 수건을 갖다가 짹 짜내면 금방 건조가 되
는데 그것을 몰랐습시다. 그 후로는 알았습시다.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을. 애리가 더러우면
애리만 빨면 되니까요. 애리 빨고, 손목만 빨면 되니까.

한번은 교회에 갔는데, 내가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칠 때인데, 그때는 빨 시간도 없었
습시다.

그냥 갔더니만

“선생님 빨리 결혼해야 되겠어요.”

“왜?”

“이런 것 빨아주게요. 많이 검었어요. 내가 빨아줄까요?” 그랬습시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내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그렇게 쇼크를 주더라는
것입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애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라 생각되었습시다.

그것은 한 5분만 시간을 내면 빠는데도 그 시간을 못 낸 것입시다. 그래서 항상 적어
놓고 다녔습시다.

이런 정신 갖고서 계속 해 왔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하도록 해요.

매일 화장하고 뭐 하려면 정말로 귀찮스러운 것이 많습시다.

새벽에는 그렇게 특별히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쳐다보는 것이 아니니까. 웬만
하면 깨끗이 닦고, 물로 칠하고 오면 되잖아요. 너무 하면 나중에는 지쳐 버립시다.

여자들 화장하는 것을 보면 너무 너무, 진짜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시다. 마음 화장하
고, 행실 화장하고 이런 것만 갖추고 오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맛이 들어서 새벽에 열심히 뛰고 달리는 모습이 자꾸 보입시다. 체질이
되면 힘이 안 듭시다. 체질이 되면 힘이 안 드는 것입시다.

체질화 되고, 습관화 되고, 버릇이 되면 힘이 안 드는 것입시다.

그런 체질이 되어서 살았기에 선생님이 옛날에 “3시간 잤다. 산에서 그냥 눈 꿈벅 하
고 자고 일어나고 했다.” 하는 것입시다.

여러분들도 체질이 되면 충분히 다스려 나갈 수 있습시다.

큰 자는 잠을 다스린대요. 여러분도 큰 자가 되었다면 잠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입
시다. 새벽 시간.

“몇 시에 열차가 간다. 몇 시에 그 마지막 차가 떠난다.” 할 때는 역시 아쉽게 “아, 1분 늦어서 못 탔다.” 이런 일이 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이니까 10분 늦어도, 20분 늦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1분만 늦어도 운전사가 쳐다보고, 그리고 손님들이 쳐다보면서 “본인 차 아닌데 좀 일찍 오시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꼭 제시간에 떠나는 하나님의 시간 역사!

선생님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너희들 시간 늦게 오면 문 닫아 버린다.” 하고 문 닫아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 때.

우리가 그렇게 해 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마음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져라. 완전하도록 하여라. 온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인생을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행해야 나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도를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거기까지 생활을 해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인생을 타락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앞으로 하나님 섭리의 원 뜻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그냥 끝난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만 잘 압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는 모릅니다. 안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는 길을 같이 가기 때문에 아는데, 자격 상실로 끝나버린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모릅니다.

완벽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라!

구약시대 때는 종들 시대라 완전하게 못 삽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해 주면 됩니다. 주인 앞에 특별히 다른 것이 없고, 그것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신약 시대 때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냥 지내면 만족합니다. 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종들이 있고, 아들로서 열심히 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 집에 사니까, 아버지니까.’ 하며 아버지에게 인사 한번 하고, 저녁 때 인사하고, 밥 먹고 끄떡 끄떡하며 그렇게 사는 것과,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 또 다릅니다.

새로운 역사가 왔을지라도, 성약 역사가 왔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부된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시고 섬기고.

그냥 ‘시대가 왔구나. 신부 시대가 왔구나.’ 하며 시대가 왔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천층 만층 구만층입니다.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사는 자도 있습니다. 그냥 살면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보다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젠가는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조각하는 사람이 세밀하게 조각을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도를 세밀하게 다 해와 줍니다. 그래야 건물 허가가 나옵니다. 시원찮게 하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도, 옷을 만들어도 다 완벽히 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싶지 않아도 자버립니다. 잠이 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이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때그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일이나 하늘에 대한 일들은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우선 살아 나가니까... 육신이 자기 할 일을 하고 나가면, 잠을 자고 밥 먹고 옷을 입고 생활하면 살아 나가니까 그냥 삽니다. 영혼도 그렇게 하며 사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영혼도 영혼 나름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존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을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느냐? 육신만 하면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육신은 존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 그것이 아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신앙이 존재하고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살고 신약 시대는 그렇게 살고 했지만, 성약 시대는 더 이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구약 시대 때 같고, 신약 시대 때 같고, 성약 시대 때가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깨닫기도 했습니다.

“어제에 있는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내일 있고, 옛적에 있던 것이 현재 있고 현재에 있는 것이 미래에 있고, 미래에 있을 것이 오늘에 있고, 오늘 있는 것이 과거에 또 있었다. 해는 떴다가 서쪽으로 가고 또 다시 뜨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바람은 불고 다 같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르랴? 해 아래서 무엇이 다른 것이 있으랴? 심령으로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 심령이 변화되었다고 해가 다르게 뜨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변화되었다고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뒤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배경은 여전히 동일하다. 구약시대 때도, 종들 시대 때도. 신약시대도 동일

하고. 성약시대가 와도 동일하다. ”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오늘 아침에 한 시간 동안 의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같은 역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하는 것이. 성약역사가 왔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구약역사입니다. 그 때는 종이 주인을 받들듯이 하나님을 모셔 왔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역사 4000년입니다. 탕감 받으면서 구원역사를 펴왔습니다. 예수님 오고, 예수님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입니다. 그때는 종들 시대가 아니고 아들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시대로 역사해 왔습니다.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메시아가 강림해서 오고, 하나님이 강림해서 뜻을 이루면 1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신부로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시대 보낸 메시아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하는 자는 신부같이 대해 준다고 했습니다. 신랑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허락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온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봐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말씀인가. 종들 시대 말씀인가, 아들 시대 말씀인가.

결혼하기 전에, 그때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그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그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지요? 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다른 것입니다.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부인이 있는 것을 부인 못 합니다. 남편을 남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형제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둘 사이에 사랑하고 위해 주고 섬겨주고 공경하고 받들고 “여보시오. 당신. 임자. 서방님. 오빠님. 아빠.”를 찾고 그렇게 해야만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야만 결혼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다르지 해는 똑같이 동쪽에서 방긋 떠서, 서쪽으로 싱긋 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동에서 불어서 서로 불고, 남에서 불어서 북으로 불고 이리 저리 불니다. 똑같습니다.

결혼했다고 바람의 방향이 달라집니까? 결혼했다고 계절이 바뀌어졌습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씩이야 변동된 것도 있겠지요. 집도 새집을 사서 새집으로 이사 가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은 여전하다.”

그렇지요? 맞지요? 여전하지요? 여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축복가정들은 많이 느끼지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 서로 위함, 서로 공경, 서로 존경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안 이루어지면 결혼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_둘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형제같이 대해지는 것입니다. 형제같이 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_사랑하는 생각도 없고, 여자 보기를 그 전에는 똑같은 자를 황금같이 봤는데 이제는 황금 같은 자도 똑같이 보입니다. 별로 예쁘지도 않게 보이고,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우러러 보이지도 않고.

결혼하기 전에는 ‘저 여자와 살면 좋겠다. 너무 멋있다. 나는 옆에만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다 그랬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 정말로 너무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결혼하라. 허락하마.”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100년 동안 좋아해야 돼. 죽을 때까지 좋아해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만 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가다가 그렇게 안 하니깐, 형제로 보이고 종으로 보입니다. 결혼해서 살다보면.

그렇지 않고 사랑하고 열심히 해도 심리적으로 보고 생리적으로 보고 인생의 태생으로 볼 때에 어떤가 하면, 식구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 오래 살면. 자꾸 살면 자꾸 식구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 살면 식구로 보이는데, 더군다나 그냥 식구같이 대해 줘 버리고, 형제같이 대해 줘 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애인같이 대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 온 애인같이!

오늘 온 애인같이 늘 대해 주고, 오늘 시집 온 애인같이 대하고, ‘지금 연애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핵 눈이 뒤집어져서 예쁘게 보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화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해도 조금씩 조금씩, 성경책을 읽을 때 한 장씩 넘어가듯이 조금씩 조금씩 늙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갑니다. 예쁘게?

본래의 얼굴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꽃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지 않습니까. 여기 꽃을 보십시오. 어제는 작은 봉오리였는데 조금씩 조금씩 자꾸 커집니다. 지금 이것은 시원찮은 꽃잎을 자꾸 뜯어내서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더 사랑해 주고, 조금씩 더 해 주고, 조금씩 더 사랑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처음보다 못하네. 뭐하네.” 하지 말고, 자꾸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것 사다 주고 먹여 주고 좋은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여자들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좋은데,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남자도 신경을 써 주고, 여자도 신경을 써 주고 서로 그래야 됩니다.

자꾸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평소에 늘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신경 써 주니까 꽃도 이렇게 됩니다.

꽃 관리 내 관리다
집 관리 내 관리다
사람 관리 내 관리다
내 육신 관리 내 영혼 관리다

어떻습니까? 그 시가 이미 묵시로 나왔습니다.

여자를 자꾸 존경해야 됩니다. 남자도 자꾸 존경하고, 위해 주고 섬겨 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어제 시를 썼는데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다른 데 있어서 그대로는 다 못합니다.

꿀뚜기도 고래, 상어가
우리러보아야 존경하옵니다

개살구도 모든 과일들이
우리러보아야 존경하옵니다

작은 자도 큰 자들이
우리러보면 존경하옵니다

존경이 그 얼마나 큰 것인지
존경하는 사람
정말로 크고 큰 사람입니다

하찮은 인간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러보지 않으면
존경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러보아야 존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러보는 것을 자꾸 밑으로 보니까 형제같이 보고, 저 밑의 종같이 보기 때문에 “야, 뭐 하는 거야? 쌍!” 이러는 것입니다.

“뉘지려고 환장했나? 죽일 거야. 해!” 이렇게 하면 그게 종입니다. 종같이 대하니까 종이 되어 버립니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립니다.

바울 선생은 “여자는 질그릇과 같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질그릇같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살짝만 해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깨지면 끝난 것입니다.

“깨지면 끝난 것이다. 그 질그릇 깨진 것이다. 살살, 살살, 살살.”

다른 사람들도 사모님 하는데, 자기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모님 오늘은 어디 가시렵니까? 번쩍 번쩍 구두를 닦아놓고, 그리고 먼지를 털어 번쩍 번쩍 빛나게 할 테니까 어디를 가시렵니까?”

“서방님 내가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이야기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왔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 시대에 섭리역사, 신부의 역사가 왔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못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약 역사의 신부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로서 시대의 하늘을 위하고, 섬기고, 받들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신부의 짓’을 해야 시대가 온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보이는 하늘의 보낸 자를 그렇게 모시고 섬기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보이는 자를 그렇게 못하는데 안 보이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믿습니까? 안 보일 때. 지금 역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는 어려서 얼렁뚱땅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르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컸습니다. 컸으니 완전히 모두 해야 됩니다. 나이도 먹고, 그리고 시대를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감을 느끼고, 시대 실감을 느끼고 간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신부로서 만드시 이제는 완벽해야 됩니다.

월명동도 완벽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돌 중에서 부슬부슬한 것, 석회석, 막 깨지는 것 시원찮은 것은 다 깨뜨려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아, 제일 처음에 저것을 쌓을 때 나라고 생각하면서 쌓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나가라는 말인가? 나는 이제 끝났단 말인가?’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집난다. 집나.’

“너 열심히 하라. 그러면 네 돌로 저기 세워줄 테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 돌 하나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깨져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연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열심히 해라. 네 돌 하나 세워 줄게.” 했는데 그 돌이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애들을 무슨 기념한다고 그 돌을 세워 주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 후에 내가 여자를 파악해보니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너무 착했습니다. 제자들을 막 꿰뚫어 보지를 앓았습니다. ‘이것, 이성 문제가 있나? 저성 문제가 있나?’ 하고 안 꿰뚫어 봤었습니다.

그 후로는 완벽한 사람들을 상징 돌로 몇 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씩 못하니까 “이것은 이 그룹 것!” 하면서 세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술단 것, 이것은 중직자들 것, 이것은 목사님들 전체 것.” 이렇게 하면서 세워놓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만 알고 있습니다. 보면 압니다. ‘아, 저것은 무슨 돌, 저것은 누구를 상징해서 세운 돌.’ 그렇게 하면서 세워 놔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듯이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신부된 입장에서 모시고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서로 존경해 주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서로 그래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우습게 봅니다. 나도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컸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큰 다음에도 무시를 했습니다. 큰 다음에도.

내가 산 속에서 고생할 때 “네가 교인들 100명만 있으면 내가 너를 진짜로 크게 보겠다.” 그랬습니다.

“100명만 있다면 크게 보겠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100명을 바라지도 않는다. 신학교도 제대로 못 갔으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00명이 넘었는데도 안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도 안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해왔습니까. 무조건 무시를 했습니다. 신학을 안 했다고 무시하고, 학교에 안 다녔다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안 알려주면 안 좋지요? 내가 늘 알려주기를 원하지요? 내가 여러분들을 알려주고 대단하게 봅니다.

어제 시를 썼습니다.

‘대단한 여자’라는 너무 멋진 시를 썼습니다. 너무 길어서 지금은 못 읽어줍니다. 아주 멋진 시를 썼습니다. 아주 극지에 들어가서 썼습니다.

어제는 딱 13시간까지 한 직무를 연속했습니다. 겨우 한 끼 밥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도 완벽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흑암의 영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산에 있을 때 많이도 혼 나가며 했고, 정말로 무서운 칼날 꺾히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어느 때 선생님이 무섭게 한마디씩 할 때는 ‘왜 저렇게 하나?’ 하지 마요. 죽는 길을 가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손이 끊어지고 목이 끊어지는데 내가 무섭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모두 해봤잖아요. 완벽하게 하고, 야무지게 일들을 하고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존경하고 위해 주고 섬겨주고, 어렸을 때도 해버릇해야 됩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위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도 꼭 끼어 주며, 앞의 사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의 그룹이 얼마나 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같이 끼어 주고 같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 중에도 내가 큰 사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아주 신입생들인데, 조건 세워서.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절대적인 선의 조건을 세운 엄청난 사람인데 모두 몰라주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끼어주고, 같이 일을 맡기고, 같이 존경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래 된 사람만 어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해봐서 그런 것을 너무 너무 잘 알아서 시정하고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합니다.